

북한 민요관의 변모양상과 특성

김문태*

|| 차례 ||

- I. 머리말
- II. 시기별 민요의 위상과 특성
- III. 민요의 부침과 민족적 특성
 - 1. 시기별 부침 양상
 - 2. 민족적 특성과 공산주의적 인간학
- IV. 맺음말

【국문초록】

북한에서 세 시기에 출간된 3종의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는 민요 작품은 37수이다. 북한문학사에서 민요는 비중있게 논의되는 작품수가 설화, 고전시가, 고전산문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 북한의 민요는 오늘날 인민들의 시대적 미감에 맞아야 하므로 전통적인 민요를 수정, 개작, 창작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결과이다. 민요작품 37수의 주제는 통치배 비판이 17수, 노동이 9수, 애국심이 7수, 순수인정상태가 4수이다. 이는 북한문학사가 투쟁적인 민요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37수의 민요작품 안에 내재된 민족적 특성이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덕목들로 시대의 요구와 민족생활의 절박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세 시기의 문학사는 공히 민요의 예술적 형상화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요에 내재된 민족적 특성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덕목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전통 민요의 위상이 저하되는 반면, 창작 민요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전통 민요에 나타나는 민족적 특성의 대부분이 순수인정상태적인 덕목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결국 북한은 오늘날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전형을 전통 민요보다는 창작민요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

주제어 : 북한, 구비문학, 민요, 문학사, 민족적 특성, 사실주의, 인간학

I. 머리말

북한의 문학관에 따르면 문학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 사람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도구이다. 따라서 구비문학은 인민들이 주체가 되고, 인민들의 투쟁적인 삶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이 되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학전통 속에서 창작·계승되어왔다는 점에서 민족적 형식이 된다. 구비문학은 민족의 우월성과 독자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적 특성을 담고 있으므로 공산주의적 문학 건설 내지 주체적 문학 건설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구비문학의 가치와 의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문학관은 시기별로 다르게 표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비문학관도 일정 부분 변모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문학관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분단이후부터 1967년까지로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 민족의 문학과 역사와 전통을 확립하고자 한 전통문화 강조 시기이다. 제2기는 1967년 유일사상과 주체사상 확립을 천명한 이후부터 1986년까지로 주체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항일혁명문학과 수령형상문학을 정립하고자 한 전통문화 소외 시기이다. 제3기는 1986년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주창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로 주체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한 전통문화 재강조 시기이다.¹⁾ 제2기에는 유일사상이 전면적으로

1) '주체적 사실주의'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주체사상의 확립보다는 유일사상에 따른 김일성 우상화에 역점을 둔 시기이며, 후기는 명실 공히 민족주체

고취·정립되는 과정에서 모든 혁명전통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으로 집중되면서 제1기에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 강조하였던 고전문화유산의 의의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제3기에는 유일사상이 정립된 상태에서 우 리식 사회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전적 전통과 민족적 전통의 계승 방안이 다시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북한문학사에서 논의되는 작품과 해석도 시기에 따라 변모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 세 시기에 각기 출간된 북한문학사들을 분석하여 우선 시기별 민요 작품의 논의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어 각 문학사에서 논의되는 민요작품이 어떻게 부침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민요의 민족적 특성이 공산주의적 인간학 내지 주체적 인간학과 어떠한 연관을 맺는지 살피기로 한다. 북한문학사는 사회과학원에서 시기별로 달리 편찬한 3종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²⁾ 이들 3종의 문학사는 북한을 대표하는 사회과학원이라는 동일 연구기관에서 순차적으로 편찬한 것이므로 지향점이 변화하는 각 시기의 당의 문예정책이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학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남한과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남한의 기존 연구에서 못 보았던 것, 안 보았던 것, 또는 흘시했던 것에 대한 자각과 자성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철저하게 실증적인 작업을 통해 사실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본고는 분단 이후 구축된 북한의 구비문학관 및 고전문학관의 전반적인 특성과 의미와 그 추이를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임을

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 본고에서는 편의상 1959년판 『조선문학통사』(총 2권)를 '1기 문학사'로, 1977~1981년판 『조선문학사』(총 5권)를 '2기 문학사'로, 1990~1999년판 『조선문학사』(총 15권)를 '3기 문학사'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들 문학사는 주 분석 자료이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용 면수를 생략하며, 논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작품명을 비롯한 용어는 북한문학사에 따른다.

밝혀둔다.

II. 시기별 민요의 위상과 특성

3종의 북한문학사에서 거론되는 민요 작품 중, 우선 고대 계급국가시기부터 9C 신라·발해시기까지의 수록작품을 살펴본다.

1기 문학사에서는 집단적 노동가요로 <두술가>와 <회소곡>을 소개한다. 이어 참요인 통일신라시기의 <지리다도가>와 <다라니은어>를 언급한다. 2기 문학사에서는 <도술가>와 <회소곡>를 집단노동요로서 비교적 자세히 다룬다. 이어 통합신라시기 말에 새로 출현한 민요의 독특한 형태로 참요를 언급하면서 <나라가 망한다>와 <리치를 이는 사람은 도망을 간다>를 든다. 3기 문학사에서는 노동민요로 <인삼노래>, 농요에 속하는 민요로 <두를가>, 부요에 해당하는 민요로 <회소곡>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또한 참요인 <지리다도파>와 <다라니은어>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1기와 2기 문학사는 <도술가>와 <회소곡>을 공히 ‘집단적 노동가요’로 지칭하나, 3기 문학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작품들이 ‘노동가요적 성격의 민요’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3기 문학사는 일반적으로 고전시가로 다루는 작품을 민요라 지칭함으로써 민요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요에 대한 관심은 3기 문학사가 『열하일기』의 「동란섭필」과 「유양잡조」에 실려있는 <인삼노래>를 단독으로 소개하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세 시기 문학사가 공히 참요를 강조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특히 3기 문학사는 참요가 후기신라말기에 새로 출현한 민요의 독특한 형식은 은어적 수법의 풍자 비판적 기백이 강해 절가 형식의 고유한 민요와는 구별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참요는 통치배와 착취자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반영하고, 모순되고 야속한 현실을 적발 폭로하며, 나라의 안정과 고통 없는 생활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항거정신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처용가>를 논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거론하는 <지리다도파>와 왕거인의 <분원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다라니은어>가 참요라는 민요의 독립 장르로 강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심지어 1기 문학시는 <헌화가>를 논하는 자리에서 <바다노래(해가)>가 인민의 위력을 체현한 참요의 기능에 대한 인민의 신념으로 발전한 노래라 규정함으로써 참요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10C부터 14C까지 고려시기의 수록작품을 살펴본다.

1기 문학사에서는 고상한 인민성이 담겨있는 참요로 『고려사』·『파한집』·『증보문헌비고』·『대동운부군옥』 등에 실린 <호목>·<묵책>·<아아가>·<우대후>를 자세히 언급하고, <보현사찰요>·<서경성>은 제목만 거론한다. 이제현의 악부시인 <거사련>·<사리화>·<제위보>·<소년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장암>·<정과정>·<서경별곡>·<수정사>는 제목만 든다. 그러나 1기 문학시는 2기나 3기 문학사와 달리 악부시를 민요라 지칭하지 않는다. 2기 문학사에서는 풍요에 속하는 <금강성>과 <한송정>을 민요로 언급하고 있다. 참요로는 <보현사>, <묵책요>, <아아가>, <우대후>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어 <사리화>, <장암>, <그리운님(거사련)>을 자세히 소개한다. 3기 문학사에서는 『고려사』에 실려있는 <금강성>·<한송정>·<그리운님(거사련)>을 민요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양주>와 <월정화>는 제목만 언급한다. 또한 풍자민요로 <사리화>와 <장암>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참요로는 <보현사>, <흑책>, <아아가>, <우대후>, <호목가>를 대단히 자세히 살핀다.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기와 3기 문학사가 이제현의 악부시를 민요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1기 문학사 역시 이제현의 악부시가 애민정신에 입각해 인민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를 직접 민요라 지칭하지는 않고 있다. 세 시기의 문학사는 공히 이제현의 소악부 작품 11수 중 <거사련>, <사리화>, <제위보>, <장암>, <소년행>, <정과정>, <서경별곡>, <수정사>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1기 문학사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제위보>와 <소년행>이 2기와 3기 문학사에는 안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현의 소악부 <제위보>가 부역을 하던 여인이 관리에게 손을 잡힌 뒤 그 치욕을 씻지 못해 한스러워 하며 불렀다는 『고려사』 악지 속악 조의 원문 내용³⁾과 다르다는 데에 기인한다.

빨래하던 시냇가 수양버들 옆에서 / 내 손 잡고 속말하던 백마 탄 사내
/ 차마를 연있게 하는 석 달 비가 내린다한들 / 내 손끝에 남은 향기를 어찌
차마 씻을 수 있으리오

이제현이 지은 이 <제위보>는 원문과 달리 밑애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여인의 낭만적 행각을 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⁴⁾ 이렇게 되면 <제위보>는 여타의 고려속요와 마찬가지로 남녀상열지사 내지 음사로 해

3) 婦人以罪徒役濟危寶 恨其手爲人所執無以雪之 作是歌以自怨 李齊賢作詩解之曰 浣沙溪上傍垂楊 執手論心白馬郎 縱有連簷三月雨 指頭何忍洗餘香 (『고려사』 권71 지25 악2 속악 제위보)

4) 박혜숙(『고려말 소악부의 양식적 특성과 형성 경위』, 『한국한문학회연구』14, 한국한문학회, 1991, pp.34-36.)은 <제위보>가 『고려사』 악지의 원가 해설과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익재 소악부 간에 내용적으로 모순된 작품으로 남녀상열지사나 행각을 담은 인정 세대의 노래라고 하였다. 황병익(『익재·급암 소악부의 제작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민속학회보』11, 한국민속학회, 2000, p.142.) 역시 『고려사』 악지 속악의 <제위보> 내용은 부녀의 정절이지만, 익재 소악부의 <제위보> 내용은 남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성규(『익재 소악부론』, 『동양학』2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p.15.)도 이제현의 소악부 작품 11수를 현실적 삶의 전화와 낭만적 삶의 전화로 나누는 뒤 <제위보>는 낭만적 삶의 전화에 속하는 작품으로 한 여인이 애정을 속삭이며 헤어졌던 백마 탄 남자를 잊지 못하는 마음을 읊었다고 하여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석될 소지가 다분해진다. 이런 연유로 1기 문학사는 <제위보>를 여자를 농락하는 귀족과 이에 항거하는 젊은 여자의 대립되는 두 세계를 비상하게 형상했다고 극찬함에도 불구하고 2기와 3기 문학사는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1기 문학사가 이제현의 또 다른 소악부로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미화한 <소년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2기와 3기 문학사는 이를 소개조차 하지 않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소악부 <소년행>은 ‘남녀가 짝을 지어 서로 봄을 즐기는’ <양주>⁵⁾에서 따온 것으로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로 해석한 1기 문학사와 달리 2기와 3기 문학사는 이를 남녀상열지사 내지 음사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북한의 세 시기 문학사는 공히 익재 소악부의 위상을 대단히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위보>와 <소년행>의 경우는 2기 문학사 이후로 해석이 달라져 문학사적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2기와 3기 문학사가 1기 문학사와 달리 봉건지배계층을 비판한 <장암>과 조국의 자연에 대한 애국적 감정을 담은 <금강성>·<한송정>을 강조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2기와 3기 문학사는 주체사상의 대두와 더불어 투쟁성과 애국심을 반영한 작품은 고양하는 반면, 남녀상열지나 음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작품은 척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참요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에 이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문학사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2기와 3기 문학사는 1기 문학사에서 제목만 거론한 참요 <보현사>가 집권양반관료들의 파벌싸움을 풍자 조소하고 있다고 하며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 그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반면 <호목가>는 이와 다른 양상

5) 楊州卽高麗漢陽府北據華山南臨漢水 土地平衍富庶繁華非他州比 州人男女方春好遊相樂而歌之也 (『고려사』 권71 지25 악2 속악 양주)

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바가지녕쿨 다 끌어들여도 한 드레박 / 가난한 부엌세간 다 굶어내도 한
드레박 / 가세 가세 멀리로 가세 / 저 산마루로 멀리로 가세 / 서리가 오지
않으면은 / 낮 갈아가지고 삼 베러가세

1기 문학사는 이 노래가 멀리 도망하려고 하면서도 삼을 베야겠다는 농민의 처지와 심리를 잘 그렸다고 하며, 3기 문학사는 이에서 더 나아가 착취자와 통치관료들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인민적 염원을 잘 표현하였다고 극찬한다. 이에 반해 2기 문학사는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2기 문학사의 이러한 태도는 이 시기의 참요와 민요작품들에는 당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과 통치배들의 부패성을 폭로하는 데 그치고, 그에 맞서 용감히 싸우고자 하는 사상적 기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지적⁶⁾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즉 2기 문학사는 <호목가>가 여타의 참요와 달리 지배계급의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비판하는 풍자가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노래 안에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지의 원인자에 대해 맞서고자 하는 투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3기 문학사는 이 참요에 투쟁성이 있다고 재해석함으로써 작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끝으로 15C부터 19C까지 조선시기의 수록작품을 살펴본다.

1기 문학사에서는 인민창작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관련하여 『동사강목』과 『동각잡기』 등에 한역시로 수록된 <서경문밖에 불이 이니>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어 2기 문학사에서 <남산의 정>으로 소개되는 노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또 다른 인민창작으로 2기 문학사에서 <우습구나>로 소개되는 노래가 언급되고, 제목이 지칭되지 않은 <우습다 그 노

6) 2기 문학사 1권, p.136.

구>를 소개한다.

2기 문학사에서는 참요로 『괘관잡기』소재의 <남산의 정>과 『용천담적기』소재의 <우습구나>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어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민요로 <강강수월래>, <정방산성가>, <괘지나 칭칭 나네>를 자세히 소개한다. 18-19C 중엽의 민요로는 <랑반마음>을 비롯하여 양반이 개·돼지·소·두꺼비 같은 동물로 비유된 민요를 언급한다. 또한 주인에 대한 증오를 표현한 <사대로>를 언급하고, 농민전쟁을 노래한 <란이 났네>와 <작일석에 통문돌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어 농업노동민요인 <덩지>·<농사놀이>·<보리타작>을 자세히 소개하고, 근로인민의 <망질 노래>와 어업노동민요인 <어부노래>, 수공업노동민요인 <대장간노래>를 비중있게 다룬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창작된 <시집살이 노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끝으로 19C말-20C초의 반일 의병 투쟁에서 창작된 민요로 <의병대가>와 <군바바>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3기 문학사에서는 인민가요인 동요 <남산에 돌 캐러 가느라고 정이 남은 게 없네>와 2기 문학사에서 <우습구나>로 소개된 참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어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인민가요로 <강강수월래>를 자세히 소개한다. 18C 민요로는 <륙자배기>, <홍타령>, <농부가>, <배따라기>를 제목만 든다. 19C의 민요는 비록 제목만을 언급하는 데 그치나, 다양한 민요를 소개하고 있다. 벼농사와 관련된 <모내기소리>·<감매는 소리>·<가래질소리>·<물푸는 소리>·<벼 베는 소리>·<농부가>, 가내작업이나 마당질을 하면서 부른 <방아타령>·<도리깨타령>·<풍구타령>, 집단적으로 작업하며 부른 <지경댕기>·<목도소리>·<나무 베는 소리>를 거론한다. 또한 어로작업과정을 노래한 <그물 신는 소리>, <배 떠나는 소리>, <삿대질소리>, <투망소리>, <홀치기소리>, <그물에서 고기 푸는 소리>, <그물 끌어올릴 때 소리>, <원포귀범(고기를 잡아가지고 배가 포구로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고기를 배에서 풀 때 소리> 등을

열거한다. 이어 혼자 일하면서 부른 서정적인 노동가요로 <물레타령>, <뽕타령>, <삼삼이>, <매(매돌)소리>, <밭 엮는 소리>, <낫소리>를 든다. 이어 산수자연을 노래한 인민서정가요로 <양산도> · <개성난봉가> · <금강산타령> · <황해도 산타령> · <구녕변가> · <한강수타령>를 들고, 공통적인 정조와 율조로 하나의 노래군을 형성하고 있는 <아리랑> · <도라지타령> · <닐리리아> · <장산꽃타령> · <노래가락> · <창부타령> · <매화타령> · <이팔청춘가>를 거론한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1기 문학사가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 <남산의 정>, <우습구나>, <우습다 그 노구>를 2기와 3기 문학사처럼 참오나 민요가 아닌 인민창작⁷⁾이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기 문학사가 2기와 3기 문학사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는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를 가사까지 들며 거론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 / 안주 성밖엔 연기 끼네 / 그 사이에 오고가는
이원수는 / 빨리 와서 우리 창생 구제하소

이 노래는 봉건통치배들을 저주하고 조소한 참요가 아니라, 이성계가 어서 회군하여 돌아와 인민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노래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노래는 이른바 지배계급의 사상가들이 인민에게 강요한 사이비 민요⁸⁾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조선 왕조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

7) 김종근(『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고찰』, 『국문학연구』22, 국문학회, 2010, pp.208-211)은 ‘북한에서 구전문학의 또 다른 명칭으로 인민창작을 사용한 데에는 이야기나 노래가 지속적으로 창작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구전문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8) 고정옥(『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p.194.)은 ‘우리 금상 심은 나무 / 삼정승 물을 퍼서 / 룡조판서 물을 퍼서 / 각골수령 열매열어 / 만백성이 포식한다’는 민요를 전형적인 사이비 민요라 소개한 바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과 저주를 반영한 <남산의 정>, 부패하고 포악한 연산군을 야유 조소한 <우습구나>와 <우습다 그 노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연유로 1기 문학사는 이 노래군을 인민창작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지칭하고 있으며, 2기와 3기 문학사는 이 노래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는 그야말로 봉건적 착취의 강화와 지배계급 내부 모순의 첨예화를 꾀한, 정권을 미화한 노래로 규정한 결과인 것이다.

1기 문학사는 이후 구체적인 민요 작품을 언급하지 않고 19C에는 구전적 민요들이 전면에서 드러나게 되었으며, 참요적 성격을 띤 민요들도 많이 불렀다고 간략히 언급하고 만다. 반면 2기 문학사는 <강강수월래>, <정방산산가>, <쾌지나 칭칭 나네> 등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반침략 애국투쟁을 주제로 한 민요들을 세 수나 들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3기 문학사도 <강강수월래>를 들고는 있지만, 다른 노래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기 문학사가 항일혁명문학과 수령형상문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의 임진조국전쟁, 농민전쟁, 그리고 반일의병투쟁 등 반침략투쟁 및 반봉건투쟁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2기 문학사가 1기와 3기 문학사에 비해 이 시기의 민요의 위상을 대폭 높이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요에 내재된 현실 비판적이고도 진취적인 인민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절실했다고 인식한 결과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한편 3기 문학사는 1기 문학사가 ‘민요와 교호관계가 있었던 잡가’로 분류한 <룩자배기>와 <홍타령>을 민요로 지칭하고 있다.⁹⁾ 이는 3기 문학사가 잡가는 원래 농민의 노래인 농요와 구별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민요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9) 장권표(『조선구전문학개요』, 사회과학출판사, 1990, p.155) 역시 대중화된 민요로 <룩자배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2기 문학사가 민요와 잡가는 다 같이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계급과 계층의 노래들로서 서로 침투되고 작용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인민의 노래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농촌적 성향의 민요와 도시적 성향의 잡가는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에 무게중심이 놓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3기 문학사는 비록 제목뿐이지만 2기 문학사에서 거론하지 않은 수많은 민요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19C 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경향과 특성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큰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그 사상 예술적 특성과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깊이 연구하여 과학적인 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¹⁰⁾는 3기 문학사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면은 최근에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전통 민요를 발굴해 편찬한 민요집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1)¹¹⁾에 농업노동요를 600여 수나 수록하고,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2)¹²⁾에 수공업노동요, 어업노동요, 토목노동요, 임업노동요를 500여 수나 실고 있다는 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세 시기 문학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민요작품은 총 37수이다.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비중있게 논의되는 작품수가 민요의 경우는 여타 장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고전시가의 경우가 64편이고, 고전산문의 경우가 66편이며, 설화의 경우가 61편인 점을 감안하면 민요의 작품 수는 현저하게 적다.¹³⁾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민요자료를 수집 조사하

10) 3기문학사 1권, p.1.

11) 장철 외,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1), 예술교육출판사, 1998.

12) 성동춘 외,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2), 예술교육출판사, 1998.

1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문태(북한 고전시가의 변모와 현대적 수용양상, 『한국시가연구』 21, 한국시가학회, 2006, p.372 : 북한 고전산문의 변모와 현대적 수용양상,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p.483) 참조.

는 과정에서 향토민요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통속민요와 신민요를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¹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전통적인 민요보다는 현대화된 민요에 치중함으로써 향토민요가 공산주의적 문학 내지 주체적 문학 건설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비중이 여타 장르보다 과도하게 저하된 것이다.

북한문학사에서의 전통민요의 위상 저하는 김일성이 ‘과거의 모든 민요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민족 문화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라는 언급¹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민요는 오늘날 인민들의 시대적 미감에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민요를 수정하기도 하고 개작하기도 하며 새로이 창작하기도 해야 한다는 지침¹⁶⁾에 충실하게 따른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당의 정책에 의해 개작하거나 창작한 민요가 수록되어 있는 『조선민요선곡집』, 『조선민요의 유래 1』, 『조선민족음악전집』에 실린 598수 중 향토민요가 15수에 그친 반면, 통속민요는 46수, 신민요는 19수, 창작민요는 518수라는 점¹⁷⁾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에 북한이 천명하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민들의 시대적 미감에 대한 고려보다는 체제 순응적이고도 체제 찬양적인 민요를 전면에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¹⁸⁾ 는 데에

14) 강동학, 『남·북한의 민요 연구 양상비교』, 『민족문화연구』3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 p.186.

15)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p.7.

16) 북한에서 편찬된 대부분의 민요자료집 서문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p.5.

차승진, 『조선민요선곡집』, 문예출판사, 1991, p.1.

17)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양상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p.62 참조.

18) 이에 대해 임동권(『북한민요의 연구』, 『한국민요학』1, 한국민요학회, 1991, p.52.)은 ‘전래민요에 인위적인 가공이 첨가되면 이미 민요는 아니고 창작시의 장르에 속하게

있다.

Ⅲ. 민요의 부침과 민족적 특성

1. 시기별 부침 양상

세 시기 문학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민요작품 37수는 여섯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부류는 ‘1기 강화 - 2기 강화 - 3기 강화’의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전시기에 걸쳐 강조되어 온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도술가>, <회소곡>, <지리다도파>, <다라니은어>, <묵책>, <아아가>, <우대후>, <거사련>, <사리화>, <남산의 정>, <우습구나> 등이 그러하다.¹⁹⁾

세 시기 문학사는 공히 원시가요는 집단노동과정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언급하면서 <도술가>가 두레와 같은 농업노동의 생활체험에 바탕을 두었으며, <회소곡>은 여인들의 고달픈 처지와 생활감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지리다도가>와 <타라니은어>가 봉건통치배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을 풍자 조소하여 신라봉건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참요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세 시기 문학사는 고려시기에 인민들 사이에서 지배계급의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비판한 <묵책>, <아아가>, <우대후> 같은 참요가 창조되어 주목할 만하다고 한다. 또한 이제현의 악부시인 <거사련>이 소박한 여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사리

된다. 자연스럽게 융출되는 공감에 따라 민요가 불러져야 하는데 정책에 따라 가공 개작된다면 민요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개탄한 바 있다.

19) 심도있게 다루어지는 작품의 양상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별고를 통해 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세 시기 문학사에서 드러나는 ‘관점의 실상’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기로 한다.

화>가 토호의 잔인한 약탈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농민들의 뜨거운 동정심을 반영하였다고 극찬한다. 아울러 조선시기의 참요 <남산의 정>이 새 왕조의 처사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저주를 반영하였으며, 참요 <우습구나>가 부패하고 포악한 연산군을 야유 조소했다고 평가한다.

이 부류는 명실 공히 민족문화유산의 핵이자 대대로 계승되어야 할 민요로 공인된 작품들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부류에 속하는 민요의 주제가 통치배 비판이 8수로 노동 2수, 순수인정세대 1수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민요에 있어 통치배 비판의 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 부류 민요의 특징으로 참요가 7수나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참요가 민요의 독특한 형식으로 함축적이며 가변적인 구조를 가지고, 단절가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고상한 인민성이 담겨있어 이 시기 문학 발전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는 높은 평가에 기인한다.

둘째 부류는 ‘1기 약화 - 2기 강화 - 3기 강화’의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주체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보현사>, <장암>, <금강성>, <한송정>, <강강수월래> 등이 그러하다.

2기와 3기 문학사는 1기 문학사에서 제목만 거론한 고려시기의 참요 <보현사>가 집권양반관료들의 파벌싸움을 풍자 조소하고 있으며, 풍자민요 <장암>이 권세가들의 출세욕과 봉건지배계층의 파쟁을 야유하였다고 평가한다. 이어 풍요 <금강성>이 반침략 조국방위의 애국 감정을 노래하고 있고, <한송정>이 향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민족적 정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악부시 창작과 악부시집 출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극찬한다. 또한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인민가요 <강강수월래>가 여성들의 애국적 감정과 전쟁 승리의 신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

이 부류 민요의 특징은 주제가 통치배 비판과 애국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대두 이후에 편찬된 2기와 3기 문학사에서 봉건통치배에 대한 증오와 풍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강조된 결과이다. 이 부류 민요의 또 다른 특징은 풍자민요인 풍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현의 소악부인 <장암>, 그리고 <금강성>과 <한송정>을 인민들 속에 떠돌아다니는 노래인 풍요로 규정하여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풍요 역시 투쟁성 및 애국심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결국 이 부류는 북한문학사가 민요의 현재적 의의를 탐색하여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부각된 작품들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주체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창출된 전통’인 것이다. 물론 주체사상 이전에 편찬된 1기 문학사의 민요에 대한 평가 역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시각에 의해 일정 부분 의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기 문학사의 평가는 주체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후의 문학사와 비교할 때 상당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남한문학사와도 형평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부류의 민요들이 첫째 부류의 민요들과 차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류의 민요들을 민족문화유산의 핵이자 대대로 계승되어야 할 민요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는 것이다.

셋째 부류는 ‘1기 약화 - 2기 약화 - 3기 강화’의 양상을 보이는 작품이다. 우리민족 제일주의에 의거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된 결과 부각된 작품으로 <인삼노래>가 유일하다.

3기 문학사는 1기와 2기 문학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고구려의 노동민요인 <인삼노래>를 들면서 삼군들의 애타는 심정을 뚜렷이 표현했다고 극찬한다. 3기 문학사가 전통문화 재강조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라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3기 문학사가 비록 제목만이지만 여러 민요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3기 문학사는 18C의 민요가 도시평민들에게 많이 불리면서

가사나 악곡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농경작업, 어로작업, 가내작업을 하면서 부른 19C의 민요들이 서정적이면서도 힘찬 선율의 흐름새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어 혼자 일하면서 부른 서정적인 노동가요들은 서정적 주인공의 생활처지에 대한 한탄과 미래에 대한 저항과 염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노동가요 외에도 인민서정가요가 또 하나의 갈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반사회의 신분적 예속에 항거하여 일어난 서민계층의 자유분방한 생활지향과 낙천적인 감정정서가 배어있다고 평가한다. <인삼노래>는 이러한 3기 문학사의 동향 속에서 강조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넷째 부류는 둘째 부류의 역으로 '1기 강화 - 2기 약화 - 3기 약화'의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주체사상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거나 다른 민요와 중첩되어 퇴조한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제위보>, <소년행>,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 <우습다 그 노구> 등이 그러하다.

1기 문학사는 2기와 3기 문학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고려시기의 <제위보>가 여자를 농락하는 귀족과 이에 항거하는 젊은 여자의 대립을 비상하게 형상했으며, <소년행>이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미화했다고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시기의 인민창작인 참요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가 이성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인민들의 마음을 담았으며, 제목이 지칭되지 않는 참요 <우습다 그 노구>는 연산군의 음란 방탕과 말로를 야유 풍자했다고 평가한다. 이 부류의 민요들은 주체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향락성, 비인민성 등이 문제시되어 폄하된 작품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위보>와 <소년행>은 2기 문학사 이후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되었고,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는 봉건통치배를 미화하는 사이비 민요로 몰렸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한 <우습다 그 노구>는 부패하고 포악한 연산군을 야유 조소한 <우습구나>와 중첩되어 2기와 3기 문학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류는 ‘1기 약화 - 2기 강화 - 3기 약화’의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항일혁명문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정방산성가>, <쾌지나 칭칭 나네>, <량반마음>, <사대로>, <란이 났네>, <작일석에 통문 돌아>, <덩지>, <농사놀이>, <보리타작>, <망질노래>, <어부노래>, <대장간노래>, <시집살이 노래>, <의병대가>, <군바바> 등이 그러하다.

2기 문학사는 <정방산성가>가 여성들의 애국적인 감정세계를 서정과 낭만으로 노래했고, <쾌지나 칭칭 나네>가 인민의 용감한 투쟁 모습과 승리에 대한 염원을 노래했다고 극찬한다. 또한 <량반마음>은 양반들의 착취상과 인색성을 풍자하고 증오하며, <사대로>는 인색하고 행패를 부리는 주인에 대한 증오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어 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을 직접 다룬 <란이 났네>와 <작일석에 통문돌아>는 농민봉기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계급적 각성의 미숙성과 반봉건적 사상 감정이 전개되지 못한 문제점도 지적한다.

2기 문학사는 이 시기에 노동가요가 활발히 창작되었다고 하면서 모내기 소리인 <덩지>가 농민들의 근면한 정신세계를, <농사놀이>와 <보리타작>이 농민들의 부지런한 모습과 풍년·행복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었다고 극찬한다. 반면 <망질노래>는 근로인민의 고달픈 처지와 고통을, <어부노래>는 어부들의 비참한 처지와 착취자들에 대한 울분을 드러냈다고 평가하지만, 빈부차이와 계급적 대립을 팔자 탓으로 보는 것이 작품의 본질적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수공업노동요인 <대장간노래>는 노동자들의 생활감정을 두드러지게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봉건윤리의 희생물이던 여성들의 비참한 처지와 항거가 반영된 <시집살이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었다고 소개한다. 한편 2기 문학사는 특히 하계 19C말-20C초의 반일의병투쟁에서 <의병대가>와 <군바바> 같은 인민의 투쟁정신과 애국심을 반영한 의병가요가 창작되었다고 언급한다.

이 민요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요 선율에 기초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의병들의 전투적인 감정에 맞는 씩씩한 선율로 표현되고 있다고 본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기 문학사가 1기와 3기 문학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민요들을 소개하면서 작품의 의의뿐만 아니라 한계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기 문학사가 민요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투쟁성 강화에 따라 인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또한 2기 문학사는 15수나 되는 민요들을 단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요에 대한 관심은 1기나 3기 문학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것이다. 이는 2기 문학사가 민요에 내재되어 있는 인민의 현실 직시적인 관점과 집단적인 힘을 간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기 문학사가 편찬된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민의 현실 비판적 투쟁이 필요했기에 그러한 의미를 지닌 민요가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2기 문학사가 18-19C 중엽에 민요의 발전과 주제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민요가 양반통치배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증오와 반항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이 부류에 속하는 민요들이 한결같이 15C부터 19C까지의 조선시기 작품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물론 3기 문학사 역시 앞서 살핀 것처럼 1기와 2기 문학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작품을 소개하여 민요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2기 문학사만큼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다. 3기 문학사의 민요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우리민족 제일주의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향은 세 시기의 문학사가 후대로 가면서 인민보다는 민족을 강조해나가는 것²⁰⁾과도 연관이 있다. 2기 문학사의 인민에 대한 강조가 3기 문학사에 와서는 민족에 대한 강조로 관점이 전환되

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여섯째 부류는 다섯째 부류의 역으로 '1기 강화 - 2기 약화 - 3기 강화'의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유일사상의 대두에 따라 약화되었으나, 우리민족 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민족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된 작품으로 <호목가>가 유일하다.

세 시기 문학사는 공히 고려시기의 참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호목가>는 여타의 참요들과 다른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1기와 3기 문학사는 참요 <호목가>가 착취자들의 수탈에 따른 인민들의 고달픈 생활 처지와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지만, 2기 문학사는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2기 문학사의 관점이 투쟁성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호목가>에는 통치배 비판 기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민요 안에 농민들의 투쟁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암묵적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셋째 부류의 역으로 '1기 강화 - 2기 강화 - 3기 약화'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민족 제일주의 역시 주체사상의 연장선에 있기에 1기와 2기 문학사에서 강조한 작품을 3기 문학사에서 도외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첫째 부류의 역으로 '1기 약화 - 2기 약화 - 3기 약화'의 경우를 산정해 볼 수 있으나, 이에 속한 작품은 남한 문학사와의 비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논의할 대상이 못된다. 이상의 논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20) 김준형(『북한의 고전문학사 기술양상과 특징』,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2011, p.21)은 북한문학사가 후대로 가면서 개체로서의 인민의 삶보다는 전체로서의 민족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인민을 민족으로 환치했다고 한 바 있다.

부류	시기별 변화	작품수	작 품 명
1	1기 강화 - 2기 강화 - 3기 강화	11수	도솔가, 회소곡, 지리다도파, 다라니은어, 목책, 아야가, 우대후, 거사런, 사리화, 남산의 정, 우습구나
2	1기 약화 - 2기 강화 - 3기 강화	5수	보현사, 장암, 금강성, 한송정, 강강수월래
3	1기 약화 - 2기 약화 - 3기 강화	1수	인삼노래
4	1기 강화 - 2기 약화 - 3기 약화	4수	제위보, 소년행,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 우습다 그 노구
5	1기 약화 - 2기 강화 - 3기 약화	15수	정방산성가, 쾌지나 칭칭 나네, 량반마음, 사대로, 란이 났네, 작일석에 통문돌아, 덩지, 농사놀이, 보리타작, 망질노래, 어부노래, 대장간노래, 시집살이 노래, 의병대가, 군바바
6	1기 강화 - 2기 약화 - 3기 강화	1수	호목가

2. 민족적 특성과 공산주의적 인간학

이상과 같은 세 시기 문학사의 평가를 고려하면, 북한문학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민요작품 37수의 주제는 크게 네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통치배 비판으로 <지리다도파>, <타라니은어>, <목책>, <아야가>, <우대후>, <호목가>, <보현사>, <사리화>, <장암>, <제위보>²¹⁾, <남산의 정>, <우습구나>, <우습다 그 노구>, <량반마음>, <사대로>, <란이 났네>, <작일석에 통문돌아> 등 17수가 있다. 둘째, 노동으로 <도솔가>, <회소곡>, <인삼노래>, <덩지>, <농사놀이>, <보리타작>, <망질노래>, <어부노래>, <대장간노래> 등 9수가 있다. 셋째, 애국심으로 <금강성>과 <한송정>, <강강수월래>, <정방산성가>, <쾌지나 칭칭 나

21)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1기 문학사에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귀족에 대한 항거’라는 1기 문학사의 해석에 따른다.

네>, <의병대가>, <군바바> 등 7수가 있다. 넷째, 순수인정세대로 <거사련>, <소년행>, <서경 문밖에 불이 이니>, <시집살이 노래> 등 4수가 있다.

세 시기 문학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민요작품의 주제는 통치배 비판이 가장 많고, 노동과 애국심과 순수인정세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북한의 문학사는 투쟁성을 지닌 민요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시기에 걸쳐 강조되어 온 첫째 부류의 작품들 대부분이 통치배 비판에 속해 있다는 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은 다섯째 부류에서 보듯이 투쟁성을 앞세워 항일혁명문학과 수령형상문학을 정립하고자 하던 시기에 편찬된 2기 문학사에서 민요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통치배 비판 주제의 강조는 최근에 편찬된 『조선민요 1000곡집』²²⁾에서 전통 민요를 노동민요, 세대민요, 민속놀이민요, 그리고 ‘반침략반봉건투쟁민요’로 구분하고 있는 데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제와 관련하여 37수의 민요작품 안에 내재된 사상적 내용의 민족적 특성²³⁾은 앞서 살펴본 시기별 평가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 노동의 기쁨, 낙천성, 고상함, 행복, 부부애, 믿음, 열정, 명랑함, 소박함, 아름다움, 진실성, 동정심, 천진난만, 자연애, 애국심, 향토애, 비판성, 승리욕, 서정성, 낭만성, 긍지, 자부심, 적개심, 반항심, 기상, 슬기, 용맹성, 근면성, 부지런함, 투쟁성, 투지, 박력성, 경쾌함, 생동성, 씩씩함, 용기, 집단성, 자유분방함 등이 바로 그러하다. 북한문학사는 이러한 민족적 특성이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덕목들로 시대의 요구와 민족생활의 절박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 덕목들이야말로 ‘문학예술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인물’²⁴⁾이 지녀

22) 윤수동, 『조선민요 1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23) 세 시기의 문학사에서는 공히 구성형식이나 운율과 같은 예술적 형상화 측면에서의 민족적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야할 아름답고 모범적인 것이다. 이는 곧 이들 덕목이 공산주의의 이상적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사상적 내용이자 대대로 계승해야 할 민족적 특성인 것이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인간, 인민 속에서 나온 새형의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이상적 덕목으로서 민요가 구현해 나가야 할 전형인 것이다. 반면 37수의 민요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고달픔, 애타는 심정, 도덕적 저열성, 부패, 타락, 매관매직, 굴복성, 유희성, 과별싸움, 약탈성, 증오심, 출세욕, 농락, 포악성, 음란, 방탕, 인색성, 행패, 예속 등은 반민족적 특성이자 인민들이 맞서 투쟁해야 할 반인민적 특성임을 암시한다. 공산주의의 이상적 인간에 반하는 내용이자 특성인 것이다.

북한은 문학의 본성을 ‘인간학’이라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곧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리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 한다. 문학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 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을 그리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줌으로써 인간에게 복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본질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 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지혜를 지니고 자주와 창조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새 시대의 참다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에 있는 것이다.²⁴⁾

결국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자주적인 인간, 인민 속에서 나온 새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하여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24)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p.218-225 참조.

25)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29-36 참조.
이러한 면은 심지어 ‘동화문학이 진정 공산주의의 인간학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심오한 인간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정룡진,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문예출판사, 1991, p.33.)는 언급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화 창작을 위해서는 학습과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보람있는 삶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적극 탐구하고 깊이있게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 정치적 자주성을 지키고 빛내 나가는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²⁶⁾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권 힘 있고 존엄한 자주적인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북한에서의 이상적 인간형이자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지향점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복무하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인민의 지향, 염원, 미감, 정서에 부합하도록 민족생활을 그려야 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심을 양양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²⁷⁾는 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에 입각한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은 오늘날 새롭게 창작되는 모든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예술에 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문학관이 변모한 세 시기에 각기 출간된 3종의 북한문학사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민요 37수 역시 공산주의적 인간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결과라 할 것이다. 민요 37수에 내재되어있는 사상적 내용의 민족적 특성은 인간학으로서의 민요가 구현해나가야 할 전형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덕목을 갖춘 인간을 노래하고, 그러한 인간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서의 민요의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민요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반면, 이러한 덕목을 담아내는 민요는 대대로 계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새로 창작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전통 민요의 약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

26) 한중모·정성무, 앞의 책. p.41.

이러한 견해는 ‘인간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는 김정일(『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5. p.39.)의 견해와 동계의 것이다.

27) 김정웅, 앞의 책, pp.146-147.

다. 3종의 문학사에서 비중있게 언급되는 37수의 민요작품에 내재된 민족적 특성의 대부분이 순수인정세대적인 덕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민요 37수의 주제는 수적인 측면에서 통치배 비판, 노동, 애국심, 순수인정세대 순인데 반해, 이들 민요 안에 내재된 사상적 내용의 민족적 특성은 그 반대로 순수인정세대적인 덕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 민요에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에서 요구하는 통치배 비판이나 노동이나 애국심 같은 덕목이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 시기 문학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작품 수가 설화, 고전시가, 고전산문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북한의 문학관에서 요구하는 민족적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전통 민요는 약화되는 반면, 창작 민요는 수적인 면에서 비교도 안될 만큼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오늘날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전형을 전통 민요보다는 창작 민요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설화나 고전시거나 고전산문과 달리 민요는 손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열렬한 혁명가이자 공산주의자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 주체적인 인간이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 하에서 행동하고 사교함으로써 기실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서의 민요에서 자주적이지 못한 인간을 지향하게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선두에 노동계급이 있고, 이러한 노동계급의 선봉에 당과 수령이 있음으로 해서 주체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해 주체인 인민대중이 노동계급 및 당과 수령에 예속됨으로써 그들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에 있어서의 실질적 주체는 인

민대중이 아닌 수령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지닌 모든 능력은 오직 수령을 받드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점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도 그 나름의 인간론이 있어왔으나, 그 이론은 인간을 사회주의 발전의 주체로 확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²⁹⁾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오늘날 북한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서의 민요는 그들이 지향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영도하는 수령을 노래하는 동시에 수령에 복무하는 길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전통 민요가 쇠퇴하고, 새로운 민요가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V. 맺음말

본고는 북한의 문학관이 변모하는 세 시기에 순차적으로 출간된 3종의 문학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요를 통해 북한 민요관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28) 이러한 면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박상천(『북한 문화예술에서 ‘민족 문화’와 ‘민족적 형식’의 문제』, 『북한연구학회보』6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2, p.320.) 역시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춘 우리식 문화의 진면모는 소위 수령형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영광과 김정일 동지의 위대함을 형상하는 최상의 영예와 특전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만다.’고 하였고, 김영수(『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보』26권 2호, 한국정치학회, 1992, p.149.)도 ‘북한의 민족주의적 특성에는 개인 이상화를 목적으로 한 소비니즘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유광진(『주체사상과 북한의 민족관』, 『안보연구』20, 동국대 안보연구소, 1991, pp.107-108.)도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 사람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드는 작업은 김일성에 대한 열광주의와 직결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29) 김창호, 『마르크스 역사철학에서 주체성의 문제와 사회주의 인간론』, 『철학연구』29, 철학연구회, 1991, p.72.

마련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 시기 문학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민요작품은 37수이다.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민요는 여타 장르보다 비중있게 논의되는 작품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오늘날 인민들의 시대적 미감에 맞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민요를 수정·개작·창작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민요작품 37수는 크게 여섯 범주로 분류된다. 전시기에 걸쳐 강조되어 온 작품이 11수, 주체사상의 대두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작품이 5수,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의거하여 새롭게 부각된 작품이 1수, 주체사상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아 퇴조한 작품이 4수, 항일혁명문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작품이 15수, 유일사상의 대두에 따라 약화되었으나 우리민족 제일주의의 기치아래 민족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된 작품이 1수이다. 주제별로는 통치배 비판이 17수, 노동이 9수, 애국심이 7수, 순수인정세대가 4수이다. 투쟁성을 지닌 민요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요에 내재된 사상적 내용의 민족적 특성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덕목이 된다. 북한 민요집에서 전통 민요는 위상이 저하되는 반면, 창작 민요가 지나치리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통 민요에 내재된 민족적 특성의 대부분이 순수인정세대적인 덕목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결국 북한은 오늘날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전형을 전통 민요보다는 창작민요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본고는 분단 이후 구비문학과 고전문학을 포함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관점의 실상과 변모양상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선결적 작업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민요작품들에 대한 시기별·부류별 분석 작업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1기 북한문학사>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59.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하)』, 과학원출판사, 1959.

<2기 북한문학사>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년판.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년판.

김하명·류만·최탁호·김영필, 『조선문학사(1926-194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1945-19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문학사(1959-197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기 북한문학사>

정홍교, 『조선문학사(원시-9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1.

정홍교, 『조선문학사(10세기-14세기)』,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김하명, 『조선문학사(15세기-16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1.

김하명, 『조선문학사(17세기)』, 사회과학출판사, 1992.

김하명, 『조선문학사(18세기)』,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김하명, 『조선문학사(19세기 초중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년.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류만, 『조선문학사(1926-1945) I』, 사회과학출판사, 1992.

류만, 『조선문학사(1926-1945) II』,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오정혜·리용서, 『조선문학사(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김선려·리근실, 『조선문학사(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리기주, 『조선문학사 12』, 사회과학출판사, 1999.

최형식, 『조선문학사 13』, 사회과학출판사, 1999.

천재규·정성무, 『조선문학사 14』, 사회과학출판사, 1996.

김정웅·천재규, 『조선문학사 15』, 사회과학출판사, 1998.

<기타>

고려사

2. 단행본

-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p.194.
-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p.7.
-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p.146-147, pp.218-225.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5, p.39.
- 성동춘 외,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2), 예술교육출판사, 1998.
-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 윤수동, 『조선민요 1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사회과학출판사, 1990, p.155.
- 장철 외,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1), 예술교육출판사, 1998.
- 정룡진, 『이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문예출판사, 1991, p.33.
- 차승진, 『조선민요선곡집』, 문예출판사, 1991.
-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29-36, p.41.

3. 논문

- 강동학, 「남·북한의 민요 연구 양상비교」, 『민족문화연구』3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 p.186.
- 김문태, 북한 고전시가관의 변모와 현대적 수용양상, 『한국시가연구』 21, 한국시가학회, 2006, p.372.
- 김문태, 북한 고전산문관의 변모와 현대적 수용양상,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p.483.
- 김영수,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보』26권2호, 한국정치학회, 1992, p.149.
- 김종근,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고찰」, 『국문학연구』22, 국문학회, 2010, pp.208-211.
- 김준형, 「북한의 고전문학사 기술양상과 특징」,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2011, p.21.
- 김창호, 「마르크스 역사철학에서 주체성의 문제와 사회주의 인간론」, 『철학연구』29, 철학연구회, 1991, p.72.

- 박성규, 「익제 소악부론」 『동양학』2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p.15.
- 박상천, 「북한 문화예술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적 형식’의 문제」, 『북한연구학회보』6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2, p.320.
- 박혜숙, 「고려말 소악부의 양식적 특성과 형성 경위」, 『한국한문학연구』14, 한국한문학회, 1991, pp.34-36.
- 유광진, 「주체사상과 북한의 민족관」, 『안보연구』20, 동국대 안보연구소, 1991, pp.107-108.
- 임동권, 「북한민요의 연구」, 『한국민요학』1, 한국민요학회, 1991, p.52.
-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양상 연구」, 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62.
- 황병익, 「익제 · 급암 소악부의 제작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민속학보』11, 한국민속학회, 2000, p.142.

Abstract

Transition and property of Recognition on Folk Song
in North Korea

Kim, Moon-tae

There are 37 folk songs commonly and deeply discussed in the three kinds of literary history of the North Korea that were published in three periods. In the North Korea's literary history, the number of folk songs that were discussed in detail is less than the number of folk tales or classical poetry or classical prose that were discussed. This is the result of the guideline that North Korean folk songs should meet the people's sense of beauty at that time by revising, remaking, and creating. The themes of folk songs are criticism on ruler (17), labor (9), patriotism (7), and pure human touch (4). This shows that the literary history of North Korea emphasizes revolutionary folk songs. North Korea is aware that the national traits in 37 folk songs contain the people's progressive virtues, and these reflect the needs of the time and the urgent problems in the people's lives. However, these three kinds of literary history do not mention the aspects of artistic imagery. National traits in folk songs are virtues that communist anthropology should pursue. But traditional folk songs have been underrated, while creative folk songs have been emphasized in the North Korea. Because most of themes of national traits in traditional folk songs are pure human touch. After all, the epitome of the principal communist anthropology of the North Korea has been achieved through creative folk songs than traditional folk songs.

Key-words : North Korea, oral literature, folk song, literary history, national trait, realism, anthropology

김문태

소속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

주소 :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가톨릭대학교 비루투스관 307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010-9964-9667, (연구실)02-2164-4929

전자우편 : kmthill@nate.com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